

태평양전쟁기 미국의 對일 심리전과 일본인의 반응

장 회 식*

1. 서 론
2. 심리전 기구 및 뼈라의 운반수단과 수량
3. 뼈라 속에 담긴 메시지
4. 일본인의 반응
5. 결 론

1. 서 론

전쟁의 종류에는 무력전, 심리전, 자원전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특히 전시에 적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리전은 상대국의 정치, 군사, 경제, 사회, 역사, 문화, 예술, 외국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문가들과 외국인 등이 총집결하여 수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¹⁾ 이와 같이

* 광운대학교 강사

1) 일반적으로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 또는 줄여서 psywar)과 '선전'(propaganda)이란 용어는 종종 혼용되어 사용된다. 두 용어 모두 전시에 사용되나 전자가 군사적인 성격이 더 강하며 태평양전쟁기 미군이 주로 사용했다. 이 논문에서는 '심리전'과 '선전'을

융합 작전의 특성을 가진 심리전은 오랫동안 전쟁사 연구자들 사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근대 이후 일본이 참전한 전쟁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많은 희생자를 낸 태평양전쟁(1941~45)에서 당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실시한 것처럼 미국도 일본에 대해 대규모의 심리전을 전개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의 대일 심리전을 논할 때 주목할 부분은 일본의 항복 결정과 상관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1941년 12월 8일,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공격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은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 개전 초기 일본군은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뒀으나, 얼마 후 군사력의 열세 등으로 인해 점차 패색이 짙어졌다. 결국 일왕 히로히토는 1945년 8월 14일에 전쟁을 종결하는 결단을 내렸다. 소위 ‘성단’(聖斷)으로 불린 일왕의 결단 배경에는 일본군의 전력 약화, 미군의 공습과 원자폭탄 투하, 소련의 참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이외에도 특별한 외부적 요인이 있었다. 8월 14일 일왕이 항복을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8월 13일 오후부터 14일 오전에 걸쳐 미군기가 수도인 도쿄 등지에 살포한 뼈라가 군의 손에 들어갈 경우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²⁾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된 심리전에서 뼈라가 국가원수의 항복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아마 태평양전쟁기 미군이 일본에 살포한 뼈라가 유일할 것이다. 이처럼 뼈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미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심리전과 일본인의 반응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³⁾ 이 글은 미국이 일본인의

혼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2) 寺崎 英成, マリコ・テラスキ ミラー, 『昭和天皇独白録・寺崎英成御用掛日記』, 文藝春秋, 1991年, p.133.

3) 현재까지 미국이 일본 본토에 대해 실시했던 심리전에 관한 한글 연구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외국어 연구로는 일본 본토 전체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심리전에 관한 것은 없으나, 미국이 일본과 지상전을 벌인 지역인 오키나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전에 관한 연구로 大田昌秀, 『沖縄戦下の米日心理作戦』, 岩波書店, 2004년이 있다. 오타의 연구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 실시한 심리전과 일본인의 반응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태평양전쟁기 연합국인 미국, 영국, 호주가 일본군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살포한 뼈라가 작성된 과정과 일본인의 반응을 분석한 최신 연구로는 土屋礼子, 『対日宣伝ビラが語る

사기를 저하시켜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거나 또는 적의 항복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에 살포한 뼈라가 일왕의 항복 결정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었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이 가능하다면 미국이 일본을 향해 실시한 심리전과 이에 대한 일본인의 반응은 태평양전쟁사 연구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국의 대일 심리전과 일본인의 반응에 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심리전 수행의 구체적인 매체로는 뼈라와 단파 및 중파 방송이 있었으나, 전시기 일본 당국은 미국이 일본 본토를 향해 심리전을 전개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일찌감치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단파수신기 중 대부분을 몰수한 상태였고, 미국의 중파 방송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전파(jamming)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⁴⁾ 전후 미국이 일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자료에 의하면, 응답자의 91%가 미국의 중파 방송을 듣지 못했으나, 약 과반수인 49%가 미군 뼈라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⁵⁾ 결국 일본 국민 중 극소수만 샌프란시스코와 하와이에서 송출된 단파 및 사이판의 중파 방송을 들을 수 있었으나, 뼈라는 훨씬 더 많이 노출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당시 일본 사회에서 나타난 미국의 심리전

太平洋戦争』, 吉川弘文館, 2011년이 있다. 미국과 일본의 전쟁을 ‘인종전쟁’의 시각에서 연구한 John Dower, *War Without Mercy: Race and Power in the Pacific War*(New York: Pantheon, 1987)은 미국의 국내 선전에서 나타난 일본인의 이미지와 일본의 對미 선전 속의 이미지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미국이 일본에 대해 실시했던 심리전에 관한 내용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연합국남서태평양군사령부의 심리전과 전후 일왕제 구상에 관해서는 필자의 논문인 張會植, 「マッカーサー軍の対日心理作戦と天皇観」, 『季刊 戦争責任研究』, 第41号, 2003年 9月이 있고, 맥아더군이 태평양지역의 일본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전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Allison Gilmore, *You Can't Fight with Bayonets: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the Japanese Army in the Southwest Pacific*(Lincoln & London, 1998)이 있다.

4) 전시기 일본 국내에는 약 500만대의 라디오가 있었다. 단파수신기는 약 500대가 있었으나, 일본정부는 외국의 단파방송 수신을 금지했다. 당시 일본 국내 상황에 관해서는 北山節郎, 『ピース・トーカー-日米電波戦争』, ゆまに書房, 1996年, 60~70쪽 참조.

5) 米国防略爆撃調査団, 『The United States Strategic Bombing Survey』(太平洋戦争白書)(第7巻), 日本図書センター, 1992年, 127~28쪽.

매체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뼈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글의 분석내용은 첫째, 미국의 대일 심리전에 관여한 기구 및 일본에 투하된 뼈라의 운반 수단과 수량이다. 둘째, 대표적인 뼈라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에 관해 다룬다. 셋째, 미국의 대일 심리전의 목적은 일본인의 전쟁 의지를 저하시켜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거나 항복을 유도하는 데 있었으므로 뼈라에 대한 일본인의 반응이 중요한 분석대상이다. 여기서는 먼저 뼈라에 대해 일본 당국이 취한 대책을 살펴본 후 국가원수인 일왕과 일반 국민의 반응에 대해 알아본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대일 심리전 관련 인물 가운데 주요 인사의 보고서(미국 스탠포드대학교 후버연구소 자료관 소장), 종전 후 미국전략폭격조사단(USSBS)이 일본에서 수행한 조사보고서와 인터뷰 자료(일본 히토츠바시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 마이크로필름), 일본정부 각 기관의 문서, 일왕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인사들의 회고록, 전시기 발행된 일본 신문 등 미국과 일본 측의 1차 사료를 주로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먼저 미국의 대일 심리전에 대한 기존 연구가 지니고 있는 개별 주제 중심 또는 오키나와라는 특정지역에 치중된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토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 고찰을 시도함으로써, 태평양전쟁기 미국이 실시한 대일 심리전의 전반적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 있다. 또한 당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지휘하던 연합국남서태평양군사령부(이하 ‘맥아더군’)에서 일본에 대한 심리전에 종사한 많은 요원들이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에서도 맥아더의 지휘 아래 심리전을 수행한 점 그리고 미군이 대일 심리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든 〈공습예고 뼈라〉가 한국전쟁에서도 다시 살포되어 “성공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렸던 사실에서 볼 때 한국전쟁시 실시된 미국 심리전의 전사(前史)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⁶⁾

6) 이임하, 『적을 뼈라로 물어라-한국전쟁기 미국의 심리전』, 철수와 영희, 2012년, 353쪽.

2. 심리전 기구 및 뼈라의 운반수단과 수량

전시기 태평양 전선의 일본군과 후방의 일본인을 향해 실시한 미국의 심리전 기구는 다양하게 존재했는데 심리전 영역을 둘러싸고 정치적 다툼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미국정부의 공식 선전기관은 1942년 6월에 설립된 전시정보국(OWI)이었다. 이 기관은 워싱턴의 본부 이외에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사이판 등지에 지부를 두었다. 전시정보국은 설립 당초 국내·외 선전 모두를 담당하였으나, 전통적으로 선전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야당인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대내선전용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결과, 1943년 초부터 기구가 축소되어 대외선전만을 담당하는 기구로 전락했다. 정치적 야심이 강했던 공화당 성향의 군인인 맥아더도 민주당 출신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정권이 만든 전시정보국이 자신의 휘하에서 일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겨 요원들의 활동을 금지시킨 일화는 유명하다.⁷⁾ 선전의 내용면에서 보면, 전시정보국은 소위 ‘백색선전’(white propaganda)으로 불리는 공개적인 부문을 담당했다. 전시정보국과는 달리 같은 시기에 국방부 통합참모본부 산하의 조직으로 설립된 전략국(OSS, 현 정보기관 CIA의 전신)은 ‘흑색선전’(black propaganda), 파괴활동, 특수작전, 첩보활동, 유언비어 유포 등 주로 비밀활동에 속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전략국 또한 전시정보국과 유사한 이유로 맥아더 사령부 내에서 활동이 금지되어 주로 미국 본토, 버마(현재의 미얀마), 중국, 인도 등지에서 대일 비밀공작 업무를 수행했다.⁸⁾

일본군과 싸우던 태평양전선의 미군은 각 사령부에 별도로 심리전 부서를 운용하는 체제를 유지했다. 남서태평양 전선에는 1944년 6월 육군의 맥아더군이 심리전부(PWB), 중남태평양 방면은 평소 맥아더와 경쟁

7) 張會植, 「マッカーサー軍の対日心理作戦と戦後天皇制構想」, 一橋大学大学院修士論文, 2003年, 5쪽.

8) 위의 논문, 같은 쪽.

관계에 있던 체스터 니미츠 제독이 이끄는 태평양해군사령부(이하 ‘니미츠군’)가 심리전부(PWS)를 각각 설치하여 대일 심리전에 임했다. 두 심리전부는 태평양전선에서 육군과 해군의 심리전을 각각 분담했다. 각 전선의 사령부에 설치된 심리전부에는 미군과 일본 전문가 이외에도 본국의 일본계 1, 2세와 태평양전선에서 미군에 잡히거나 투항해 온 일본군 포로 등이 심리전 활동에 참여했다.⁹⁾ 심리전에 적군 포로를 이용한 것은 명백히 전시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전쟁법규 위반이었으나, 당시 영국,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를 용인했다.

맥아더군이 일본에 투하한 최초의 뼈라는 전쟁 후반인 1944년 10월 필리핀 근해의 레이테해전에서 일본군을 대파한 사실을 알리는 신문 형태의 뼈라 <낙하산뉴스>의 호외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에 본격적으로 뼈라가 투하된 시기는 필리핀 중심부인 루손섬을 점령한 후 일본 본토에 대한 공략을 준비하던 1945년에 들어서였다. 이렇게 일본에 살포된 뼈라의 주요 운반수단으로는 맥아더와 함께 작전을 펼치던 극동공군(FEAF)의 B-24와 B-25 그리고 해군의 함재기가 동원되었다.¹⁰⁾ 또한 니미츠군 소속 폭격기와 함재기 그리고 제20공군의 B-29도 참가했다.¹¹⁾

9) 위의 논문, 5, 10쪽.

10) Bonner Fellers, “Report on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Japan, Southwest Pacific Area, 1944-1945”(이하 “Report”), 15 Mar. 1946, *Bonner F. Fellers Collection*, Archives of Herbert Hoover Presidential Library and Hoover Institution on War, Revolution and Peace, Stanford University, California.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후버연구소 내 자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Bonner F. Fellers Collection은 소량으로 별도의 파일명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11) Joint Intelligence Center, “Leaflets Dropped and Target Areas(5 Mar. 1945 to 16 Aug. 1945)”, *U.S. Strategic Bombing Survey(Pacific): Records and Other Records, 1928-47*, Microfilm Publications M1655(National Archives: Washington, 1991),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Hitotsubashi University (이하 “USSBS Records”), Roll 136. 미국전략폭격조사단 자료인 USSBS Records는 1991년 국립공문서관(NARA)이 원본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한 것이다. USSBS Records에는 미국 조사단의 보고서 이외 전시기 일본정부가 작성한 방대한 문서가 수록되어 있어 태평양전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본고에서는 일본 히토츠바시대학교 경제연구소가 미국으로부터 구입, 소장하고 있는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하였으며, 이 자료는

일본에 투하된 뼈라의 수량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시상태에서 뼈라 통계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점이 주요 원인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 결과 현재 맥아더의 육군과 니미츠의 해군 심리전부의 통계는 불완전한 형태로만 존재한다. 맥아더와 니미츠의 심리전부 통계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전쟁 막바지인 1945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뼈라를 제작, 본토에 투하했다는 점에 있다.

먼저, 맥아더군이 제작 및 투하한 뼈라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약 2억 7천 2백만 장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태평양전선의 일본군과 본토의 일본인들에게 각각 얼마만큼 투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본토에 살포된 뼈라의 수량을 가늠할 수 없는 상태이다. 뼈라의 총수에 대해서는 맥아더군이 태평양전선의 일본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전을 연구한 엘리스 길모어가 약 4억 장의 뼈라가 제작되어 일본군에게 살포되었다고 주장한 점을 고려할 경우, 맥아더군이 태평양전선 및 일본 본토를 향해 살포한 뼈라는 적어도 4억 장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¹²⁾

<표 1> 맥아더군에 의한 시기별 뼈라 제작 및 투하

기 간	수 량(장)	비 고
계	272,000,000	
1944년 12월까지	12,691,023	투하량
1945년 1~3월	31,667,000	''
1945년 4~6월	47,007,515	''
1945년 7~8월 초순	107,964,974	''
1945년 8월 중순(?)	72,669,488	미상

맥아더군의 뼈라는 일본의 패전 후인 1945년 9월까지도 저항을 계속하고 있던 필리핀 지역의 일본군에게 투하되었음.

출처 : Fellers, "Report", 15 Mar. 1946, Bonner F. Fellers Collection의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편집한 것임.

파일명이 아닌 Roll 번호로 구분되어 있다.

12) Gilmore, *You Can't Fight with Bayonets*, p.2.

니미츠군이 투하한 빠라는 아래의 <표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약 1억 9백만 장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 또한 태평양전선과 본토의 구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맥아더의 육군과는 달리 해군이 투하한 빠라는 니미츠군의 심리전부와 전시정보국의 지부가 있는 하와이, 사이판에서 제작한 빠라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2> 니미츠군이 투하한 빠라

기 간	수 량(천장)	비 고
계	108,583	
1944년 8월	1,060	
9월	1,373	
10월	1,016	
11월	1,602	
12월	1,424	
1945년 1월	5,348	
2월	1,400	
3월	10,722	
4월	1,200	
5월	1,100	
6월	28,553	
7월	21,637	
8월	32,148	

출처 : Joint Intelligence Center, “Propaganda Materials and Records”, USSBS Records, Roll 135의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편집한 것임.

한편, 일본정부도 본토에 투하된 미군 빠라를 회수한 통계를 가지고 있었다. 내무성 통계에 의하면, 본토에는 74종 458만 4천 장 가량의 빠라가 투하된 것으로 파악되었다.¹³⁾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정부의 통계를 가지고 본토에 얼마만큼의 빠라가 투하되었는지를 파악하기에는

13) 内務省, 「極東防空軍司令部フィシャア大尉会見資料」, USSBS Records, Roll 128.

불충분하다. 당시 뼈라를 주운 일본인들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소지하거나 산이나 강에 떨어지는 등 당국이 전부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¹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완전한 통계이기는 하지만, 미국은 태평양전선과 일본 본토에 대한 심리전에서 적어도 5억 장 이상의 뼈라를 제작, 살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3. 뼈라 속에 담긴 메시지

벨기에의 역사비평가 앙느 모렐리가 주장하듯이, 심리전에서는 적국의 국민 전체를 비판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상대국 국민으로 하여금 지도자들에게 적개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심리전의 핵심이다. 상대국 지도자들의 나쁜 점을 최대한 강조함으로써 지배자의 아래에서 살고 있는 국민을 자기편으로 끌어 들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상대국의 전쟁 의지를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자의 무능함을 강조하여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¹⁵⁾

태평양전선에서 미국의 대일 심리전의 일차적 대상은 일본군이었지만, 일본 본토의 대상은 민간인이었다. 따라서 일본인에 대한 이미지 형성이 심리전의 중요한 과제이다. 태평양전선에서 장교와 사병의 분열을 일으켜 일본군의 투항을 유도한 ‘이간책’(divide and rule)은 일본 본토에도 대체로 적용되었다. 뒤에서 상세히 설명하듯이, 태평양전쟁기를 통틀어 일본 본토를 향한 미군 심리전의 주제는 ‘선 對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이미지가 지배하였고 ‘이간책’을 통해 일본 사회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14) Joint Intelligence Center, “Leaflets Dropped and Target Areas(5 Mar. 1945 to 16 Aug. 1945)”, *USSBS Records*, Roll 136과 警視庁, 「米国戰略爆撃調査ニ関する件」, *USSBS Records*, Roll 130 참조.

15) 안스·모렐리著, 永田千典訳, 「戦争プロパガンダ 10の法則」, 草思社, 2002年, 54~55쪽.

미군이 일본 본토를 향해 실시한 심리전의 두 가지 전략은 ‘진실’을 전달하는 것과 군부(미군은 ‘군벌’ 또는 ‘군국주의자’로도 호칭) 또는 각료를 비판하되 일왕과 일반 국민은 ‘희생자’ 또는 ‘평화주의자’로 취급하는 것이었다.¹⁶⁾ 따라서 미군의 적은 군부와 각료이지 신성한 일왕과 일반 국민은 아니라고 하는 〈일왕·국민 = 선·평화·피해자 對 군부·각료 = 악·전쟁·가해자〉라는 대립 구도 이미지로 고착화되었다. 그 결과 미군 뼈라 중에는 일본의 군부 또는 각료를 비판한 대립 구도의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은 양상을 보였다.¹⁷⁾ 특히 군부의 전쟁 책임에 대해 명확히 표현한 내용은 〈싸움은 본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제목의 다음 뼈라에 잘 나타나 있다.

일본의 대도시는 태평양 및 오키나와 기지로부터 끊임없이 공습에 의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도쿄, 나고야, 고베 등의 군수공업지대는 지금 폐허가 되어 가고 있으며, 과거에 번영을 누렸던 이 도시들 대부분이 마침내 잿더미로 변하고 있습니다. 전쟁터가 본토까지 이르게 된 것은, 즉 이기적인 군벌이 타도되기 전까지 미군의 공습이 매일 치열하게 전개되어 간다는 것으로서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지금의 참상에 대해서는 오직 일본 군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공격의 목표는 일본 국민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일본 군부입니다(강조 부분은 원문).¹⁸⁾

16) Gilmore, *You Can't Fight with Bayonets*, p.5.

17) 이하 미군 심리전의 2대 전략인 ‘진실’을 전달하는 것과 일본의 군부 또는 각료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대표적, 전형적인 뼈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장에서 제시하는 뼈라 이외에도 미국은 물적인 면에서 일본보다 우세하다는 것, 무조건 항복의 의미가 일본의 멸망 또는 노예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미군이 잔인하다는 일본정부의 선전은 ‘거짓말’이라는 것, 소련의 대일 참전을 알리는 것, 전쟁종결과 국가재건을 호소하는 것, 대동아공영권은 일본 지도자들의 허황된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등의 내용을 담은 다양한 종류의 뼈라가 일본 본토에 살포되었다.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에 살포된 뼈라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실제 전황을 알리는 주간지 형태의 뼈라인 〈류큐주보〉는 오키나와 현지의 군인과 민간인에게만 살포되었다. 大田昌秀, 『沖繩戦下の米日心理作戦』, 226쪽.

18) 鈴木明·山本明, 『秘録·謀略宣伝ピラ』, 講談社, 1977年, 16쪽.

이 뼈라는 오키나와 전투가 종료된 1945년 6월 직후 본토에 살포된 것이다. 미군은 당시 전황을 발표하던 대본영 보도부가 일본 국민에게 ‘진실’을 전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본 국내 방송을 청취하여 파악한 후 전선과 본토가 미군에 의해 파괴되어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한편, 전후의 전쟁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오직 일본군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보통의 일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군의 대일 심리전에서 보이는 또 다른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일왕의 이미지가 동맹국인 독일과 이탈리아의 최고지도자와는 차별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물론 미국이 본토의 미국인을 향해 실시한 선전에서는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와 더불어 일왕도 세계평화를 어지럽히는 ‘원흉’으로 묘사했다.¹⁹⁾ 그런데 독일과 이탈리아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이미지는 대내·외 선전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일왕의 경우는 달랐다. ‘악의 축’의 최고지도자들을 비난하여 자국민의 전쟁 의지를 고양시키는 의도를 가진 국내 선전과는 달리 일본 본토에 대한 심리전에서는 일왕을 ‘희생자’ 또는 ‘평화주의자’로 취급하는 정반대의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심리전 요원들이 대외선전에서 일왕에 대한 비판을 삼가한 이유가 이들이 실제로 일왕을 ‘희생자’ 또는 ‘평화주의자’로 보았기 때문은 아니었다. 전후 미국의 일본 점령과 세계질서 구상이라는 큰 틀에서 일왕을 이용하자는 의견이 미국 정부내에서 나왔고 또한 당시 일본인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신’과 같은 존재였던 그를 비판할 경우 오히려 적국 국민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심리전 본래의 목적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²⁰⁾ 다음은 일왕에 관해 묘사한 전형적인 뼈라이다.

19) William Bird and Harry Rubenstein, *Design for Victory: World War II Posters on the American Home Front*(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8), p.59.

20) 張會植, 「マッカーサー軍の対日心理作戰と天皇觀」, 20쪽.

현재의 각료는 제국을 평안하게 해야 한다는 소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평화를 애호하시는 폐하와 국민의 사이에서 평화에 대한 상의 하달을 저해하고 있다. 그들은 국민의 운명을 걸고 큰 도박을 하다가 완전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복자살로서 실패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반대로 전국적으로 국민에게 자살을 강요하여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 일본에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헌법이 규정하는 권리에 의해 제군은 폐하에게 직접 호소해야 한다. 강력한 군벌이라고 해도 폐하와 국민의 평화를 향한 열렬한 희망을 막을 수 없다 (강조 부분은 원문).²¹⁾

이 뼈라는 본토에 투하된 뼈라 중에 가장 정교하게 제작된 뼈라 중의 하나로 일왕가의 문양이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일왕과 국민 사이에서 평화에 대한 의사소통을 저해하고 있는 각료들의 책임을 묻도록 국민이 일왕에게 직접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미국은 <그림 1>과 같이 일본 국내에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경제를 혼란시키고 일반 국민과 군국주의자 등 지도자 사이를 이간시켜 내부분열을 조성(이간책)할 목적으로 일본 지폐를 위조한 <10엔 지폐 뼈라>도 투하했다. 이러한 형태의 위조지폐 뼈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각국이 심리전에서 자주 사용한 것이다. 태평양전쟁이 일본에 살포된 뼈라를 보면, 앞면은 보통 지폐의 형태이나, <그림 2>와 같이 뒷면에는 군부가 만주사변을 일으키기 1년 전인 1930년 당시 10엔으로 살 수 있는 물건과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 그리고 미국과의 전쟁 후 3년인 현재 살 수 있는 물건을 각각 비교하여 군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0엔 지폐 뼈라>는 그 외에 일본의 패전을 전제로 식료품과 일용품의 구입을 국민에게 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모두 4종류가 제작, 살포되었다.²²⁾ 뼈라를 지폐 형태로 만든 이유는 ‘돈을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을 이용하여 일단 일본인의 주의를 끌게 한 후 자신들이 전하고자 하는

21) 平和博物館を創る会編, 『紙の戦争・伝単—謀略宣伝ビラは語る』, エミール社, 1990年, 12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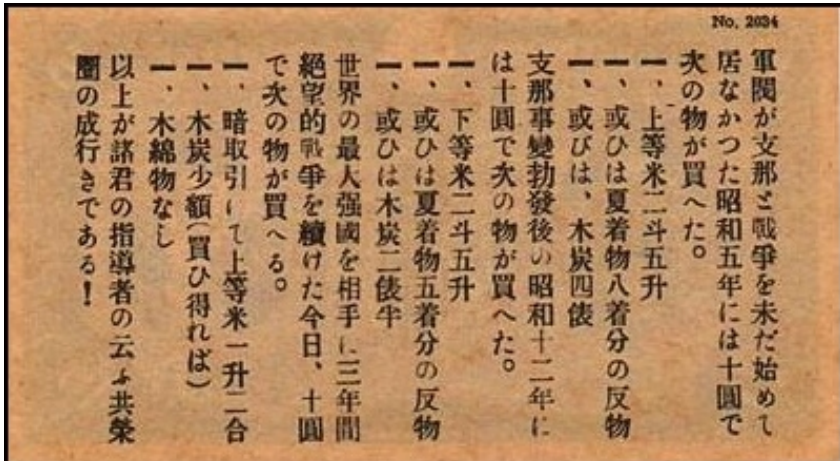
22) 위의 책, 128쪽.

뒷면의 선전 문구를 읽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림 1〉〈10엔 지폐 뼈라〉의 예(앞면)

출처 : 平和博物館を創る会編, 『紙の戦争・伝單—謀略宣伝ビラは語る』, エミール社, 1990年, 128쪽.



〈그림 2〉〈10엔 지폐 뼈라〉의 예(뒷면)

출처 : 平和博物館を創る会編, 『紙の戦争・伝單—謀略宣伝ビラは語る』, エミール社, 1990年, 128쪽.

위 뼈라와는 달리 뒷면에 선전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위조지폐 뼈라도 제작, 살포되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미국이 일본 지폐의 원본과 거의 유사한 위조지폐를 제작하려는 이유에 관해서는 당시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군과 싸우고 있던 맥아더군 휘하의 제6군 소속 정보장교로 근무하던 존 패튼 대령이 1944년 11월 19일, 맥아더군 심리전부 부장인 보너 펠러스 준장에게 보낸 편지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패튼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우리 정보장교 중 한 명으로부터 *장래에 일본 경제를 교란시키기 위해 대량의 위조지폐를 일본에 투하*하는 심리전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제안에 의하면, 뼈라는 보통의 일본인이 주워 사용할 수 있도록 소액으로 작은 지폐가 좋다. 크기가 크고 고액인 지폐의 불리한 점은 보통 일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고, 사용할 수 없거나 숨기든지 아니면 줍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아이디어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강조 부분은 원문).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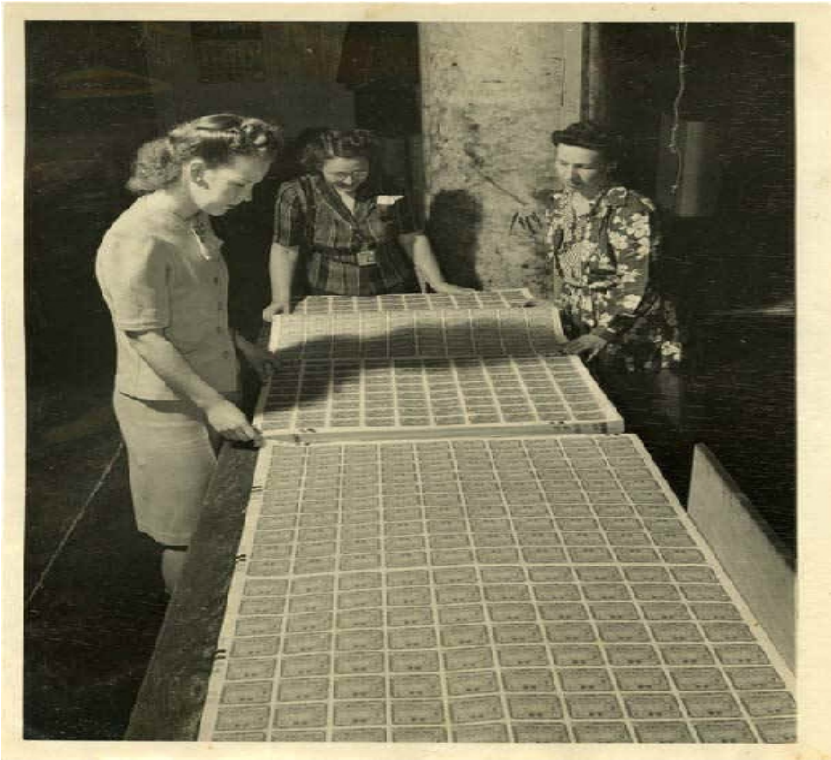
패튼의 설명에서 보이는 것은 선전 문구가 없는 위조지폐 투하도 심리전의 일환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처럼 ‘모략’의 성격이 농후한 심리전은 펠러스가 근무하던 태평양전선의 심리전부가 아닌 비밀공작을 주로 수행하는 본국의 전략국에 더 어울리는 업무였다.

따라서 패튼의 제안을 받은 펠러스는 과거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전략국장 윌리엄 도노번 소장과의 의논했다. 펠러스가 볼 때, 일본 경제에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대량의 위조지폐가 필요하였고 제작에는 정밀한 기술과 특수재질의 종이가 필요했다.²⁴⁾ 도노번의 전략국은

23) John Patton, Headquarters XI Corps, “Letter to Brigadier General Bonner Fellers”, 19 Nov. 1944, *Fellers papers*. Fellers Papers는 맥아더군의 심리전부 부장 펠러스가 딸인 낸시 펠러스 길레스피의 자택에 보관한 문서로서, 이것을 일본 공영 방송인 NHK의 히가시노 마코토씨가 발굴하여 히토츠바시대학교 요시다 유타카 교수실에 기증한 문서이다. 본고에서는 이 문서를 “Fellers Papers”로 표기한다.

24) William Donovan, “Letter to Brigadier General Bonner Fellers”, 12 Dec.

그 후 〈토이호스 작전〉(Operation 'Toy Horse')으로 명명된 비밀작전 아래 캘리포니아주에서 위조지폐를 제작하여 일본에 살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조된 지폐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일본에 투하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펠러스가 패튼과 뼈라에 관해 직접 논의한 시기가 1944년 12월인 점 그리고 일본의 신문에 이 지폐 뼈라에 관한 기사가 나온 시기가 1945년 3월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944년 12월부터 1945년 3월 사이일 것으로 추측된다.²⁵⁾



〈그림 3〉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비밀시설에서 위조지폐 뼈라 제작을 하는 여성들의 모습
출처 : 미국 국립공문서관(NARA)

1944, *Fellers Papers*.

25) 張會植, 「マッカーサー軍の対日心理作戰と戦後天皇制構想」, 32쪽.

한편 일본에 대한 뼈라 투하는 미군의 본격적인 공습이 시작된 후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미군이 실시한 첫 공습은 1942년 4월 18일이였다. 이 공습은 중국에 기지를 둔 제임스 두리틀 중령이 지휘하는 B-25 폭격기 편대가 태평양상의 항공모함 호넷에서 발진하여 도쿄, 요코스카, 나고야 등지를 폭격한 것이였다. 그러나 일본 본토에 대한 본격적인 공습은 1944년 6월부터 규슈지역, 관동지역에는 동년 11월부터 실시되었다. 초기단계의 공습은 군수공장과 군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전쟁 막바지인 1945년에 들어서는 도심부의 주민 밀집지역에 집중되었다. 특히 3월 10일과 25일에 일어난 도쿄 대공습은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유명하다.²⁶⁾

일본 내 군사목표물이 거의 잿더미로 변해가던 시기인 1945년 7월경부터 공습대상 지역을 사전에 예고하는 <공습예고 뼈라>가 본격적으로 투하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종류의 뼈라 제작을 최초로 제안한 인물은 제21폭격전대사령관으로서 도쿄대공습을 주도한 인물로 악명이 높았던 커티스 르메이 소장으로서 알려졌다.²⁷⁾ <공습예고 뼈라>는 주로 사이판의 르메이 휘하 제21폭격전대와 남서태평양 지역의 맥아더군 소속 공군기들이 투하했다. 전자는 하와이와 사이판 등지에 지부를 둔 전시정보국이, 후자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맥아더군의 심리전부가 제작한 뼈라를 주로 사용했다. 르메이 휘하의 공군기가 투하한 <일본 국민에게 고한다>는 제목의 뼈라를 보면, 앞면에 아오모리, 후쿠시마, 돗토리 등 12개 지역을 열거하고 있으며 당시 ‘하늘의 요새’라고 불리던 폭격기로서 민간 지역에 대한 무차별 공습으로 악명 높던 B-29의 사진도 함께 실려 있다. 뼈라의 뒷면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26) 위의 논문, 같은 쪽.

27) 르메이는 전후 미국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한 인물로서 일본 자위대 육성에 기여한 공로로 일왕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일본 본토 공습과 원자폭탄 투하에 대한 르메이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의 회고록인 Curtis LeMay and MacKinlay Kantor, *Mission with LeMay: My Story by General Curtis E. LeMay with MacKinlay Kantor* (New York: Doubleday&Company, INC., 1965), pp.383~88.

당신은 자신과 부모·형제·친구들의 목숨을 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구하고 싶으면 이 뼈라를 잘 읽어보십시오. 수일 이내에 뒷면에 적혀 있는 도시 중 전부 또는 일부 도시에 있는 군사시설을 미 공군이 폭격합니다. 이 도시들에는 군사시설과 군수품 제조공장이 있습니다. 군부가 승산이 없는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를 미 공군은 전부 파괴합니다만 폭탄에는 눈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도주의의 미국은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뒷면에 적혀 있는 도시로부터 피난하십시오. 미국의 적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전쟁에 끌어들이는 군부야말로 적입니다. (중략) 뒷면에 적혀 있는 도시가 아니라도 폭격될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뒷면에 적혀 있는 도시 중 전부 또는 일부는 반드시 폭격합니다. 사전에 예고하오니 뒷면에 적혀 있는 도시에서 피난하여 주십시오.(강조 부분은 원문)²⁸⁾

이 뼈라를 살포한 목적은 공습예고 이외에 적어도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일본 국민은 전쟁책임이 없고 오직 미국의 적인 군부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일본의 내부를 서로 이간시키는 전략이 돋보인다. 둘째, “인도주의의 미국”이라는 문구를 애써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후자는 당시 민간인 밀집지역에 대한 미군의 공습으로 인해 일본인들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상당한 적개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또한 뼈라가 투하되기 전에 당시 정보국을 비롯한 일본의 선전기관이 미군의 공습에 대해 ‘인도주의의 탈을 쓴 미국’이라고 부르는 등 대미 적개심을 자극하기 위해 실시한 선전을 다분히 의식한 결과 궁리한 대응선전(counter-propaganda)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이 대응선전은 당시 미국 당국이 일본의 방송을 청취하고 있어서 일본정부의 선전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²⁹⁾

28) 平和博物館を創る会編, 『紙の戦争・伝単—謀略宣伝ビラは語る』, 104쪽.

29) 張會植, 『マッカーサー軍の対日心理作戰と戦後天皇制構想』, 33쪽.

비슷한 시기에 맥아더군 소속 공군기도 <이 도시가 미 공군의 다음 공격 목표입니다>라는 제목의 빠라를 살포하기 시작했다. 르메이군의 빠라와 비교하면 맥아더군의 빠라가 일본인의 눈에 들어오기 쉽게 칼라로 제작되어 있고 “이 빠라를 투하하고 난 후 72시간 이내, 즉 3일 이내에 공습을 개시합니다. 또한 이 사실을 폭격 이전에 미리 알려주는 이유는 일본 군부 당국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을 우리의 공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라며 공습의 시기를 명확히 알려준 점이다.³⁰⁾ 르메이군과 맥아더군이 투하한 <공습 예고 빠라>의 공통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공습을 예고하면서도 동시에 일본 군부를 비판하여 지도자와 일반 국민 사이를 이간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했다는 점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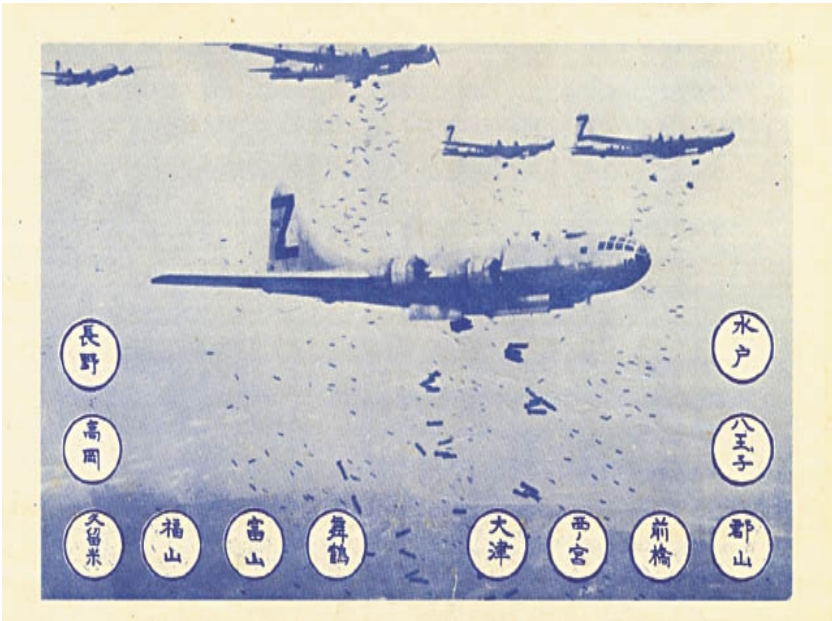
그런데 원자폭탄과 관련하여 <공습예고 빠라> 살포과정에 특이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이판에서 발진하는 르메이군의 B-29가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 공군은 폭탄 투하 직후인 8월 9일부터 10일에 걸쳐 <원자폭탄이 투하된 사실을 알리는 빠라>라는 제목의 빠라를 도쿄, 오사카, 요코하마, 후쿠오카, 나가사키, 야하타 등지에 투하했다. 이 빠라에는 “미국은 바야흐로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무서운 원자폭탄을 발명하고 이것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이 원자폭탄은 단지 1개만으로도 저 거대한 B-29의 2천 대가 1회에 투하하는 폭탄에 필적한다”고 적혀 있다.³¹⁾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B-29의 2천 대가 1회에 투하하는 폭탄에 필적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다른 지역과는 달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라는 지명을 특정한 <공습예고 빠라>를 투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³²⁾ 물론 원자폭탄이 투하되기 며칠 전인 8월 1일 다음 <그림-4>의 빠라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비롯한 35개 지역에 <공습예고 빠라>로서 투하한 적은

30) 위의 책, 13쪽.

31) 위의 책, 139쪽.

32) 張會植, 「マッカーサー軍の対日心理作戰と戦後天皇制構想」, 34쪽.

있으나, 원자폭탄이 떨어질 두 도시의 이름은 빠져 있다.



〈그림 4〉 1945년 8월 1일의 〈공습예고 뼈라〉(앞면)

전시정보국이 제작한 이 뼈라에는 나가노, 다카오카, 구루메, 후쿠야마, 도야마, 마이즈루, 오츠, 니시노미야, 마에바시, 구리야마, 하치오지, 미토 등 12개 지역만 표시하고 있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출처 : 히로시마평화기념관

당시 이 뼈라를 읽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두 도시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 자신들의 지역은 공습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을 때 대부분의 시민들이 대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준다. 태평양전쟁기 B-24 폭격기의 승조원으로 오키나와와 히로시마현의 구레 등지에 뼈라를 투하하는 임무에 종사한 로버트 버스틴은 미국이 “원자폭탄 투하 전에 많은 뼈라를 투하하여 시민들에게 알렸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회고한다.³³⁾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전시기 미군이 일본 본토에 투하한 뼈라 중 〈공습예고

빠라)가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 점을 감안할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이름도 특정하여 <공습예고 빠라>를 뿌렸다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장소에 피난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다.³⁴⁾ 하지만 미군은 의식적이었던 아니었던 간에 다른 공습 때와는 달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는 지명을 특정하여 예고하지 않음으로써 <공습예고 빠라>에서 애써 강조하던 “인도주의의 미국”이라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4. 일본인의 반응

심리전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심리전의 효과를 측정하는 작업이 매우 복잡하고 변수가 많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³⁵⁾ 심리전이 실시되기 이전 상대국가 국민의 전쟁 의지, 식량사정, 사회적 요인, 적국의 공습 등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특정국가 국민에게 미친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의 패망 직후 전시기 일본을 향해 실시한 공습(원자폭탄을 포함)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학계, 재계, 관계 전문가와 군인 그리고 사진, 마이크로필름, 문서정리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총 1,150명 이상의 대규모 조사단을 파견했다. 이 조사단이 바로 미국전략폭격조사단이다. 1946년에 작성된 조사단의 종합 보고서를 보면, 심리전의 유용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조사통계가 부풀려진 경향이 있었고 심리전 효과도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³⁶⁾ 따라서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 장에서는 미국의 심리전이

33) 1999년 3월 22일자 『読売新聞』.

34) 희생자 중에는 다수의 조선인, 대만인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35) Gilmore, *You Can't Fight with Bayonets*, p.146.

36) 米國戰略爆撃調査団, 『The United States Strategic Bombing Survey』(太平洋戰爭自書)(第7卷), 참조.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었다’ 또는 ‘없었다’로 일반화시키기는 방법을 지양하고 그 대신 뼈라에 대한 일본인의 반응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일본의 신문과 방송은 진주만 공격 이전부터 이미 당국의 엄격한 통제 아래 놓여 있었다. 내무성의 각종 검열로 인해 군국주의 일본의 언론 자유는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에 있었다.³⁷⁾ 특히 태평양전쟁 중에는 검열을 통한 소극적인 의미의 통제를 넘어 미국의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조치와 대응심리전을 전개했다.³⁸⁾ 미국의 심리전이 일본인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현실문제로 인식하고 본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한 시기는 1944년 7월 사이판이 함락된 직후로서, 주로 이 섬에서 송출되는 미국의 중파 방송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³⁹⁾

중파 방송과는 달리 일본정부가 미군 뼈라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시행한 때는 전쟁말기 미군의 대공습이 도쿄지역에 집중되던 1945년 3월경부터였다. 미 공군은 1945년 3월 9일부터 10일 사이에 걸쳐 B-29를 총동원하여 도쿄대공습을 단행함과 동시에 대량의 뼈라를 살포했다. 미군의 뼈라에 대처하기 위해 내무성은 3월 10일자로 <적의 문서·그림 등의 제출에 관한 건>(내무성령 제6호)을 공포·시행했다. 내무성령은 “적이 살포 또는 송부하는 문서, 그림과 기타의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 또는 받은 자는 조속히 이것을 경찰 관리에게 가져오거나 제출할 것. 이유 없이 전 항의 가져오거나 제출할 의무를 태만히 한 자는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거나 백 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적의

37) 일본정부는 미국과의 전쟁 개시 이후 일반인의 편지쓰기조차 금지했다.

38) 당시 일본에서는 적의 심리전을 ‘선전’, ‘심리전’, ‘모략선전’ 등으로 일컫는 반면에, 자국의 ‘선전’은 주로 ‘사상전’이라고 불렀다. 이와 같은 태도는 ‘선전’이라는 용어에 대내·외적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의식하였고, 또한 전쟁의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일본사상과 외국사상 사이의 전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요 ‘사상전’ 실시기관으로서의 군 관련 발표를 수행하는 대본영 보도부와 일반 선전을 담당하는 정보국과 산하의 대일본언론보국회 등 각종 어용단체가 있었다. 그리고 본토에 살포된 미국의 뼈라에 대한 회수 등의 대책은 주로 경찰업무가 속한 내무성이 담당했다.

39) 張會植, 「マッカーサー軍の対日心理作戰と戦後天皇制構想」, 48쪽.

심리전에 대응한 행동요령과 함께 이를 어길 경우에 받게 될 벌칙을 규정했다.⁴⁰⁾ 동시에 정부 당국은 적의 심리전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유언비어 유포에 관한 규제도 한층 강화했다.⁴¹⁾

경찰 자료를 보면, 내무성령이 시행된 후 초기 단계에는 살포된 뼈라의 70~80%가 수거되었으나, 전쟁 막바지에 들어서는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⁴²⁾ 정부 당국은 언제 하늘에서 뼈라가 투하될 지 예측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주로 뼈라가 뿌러지고 난 뒤에 대책을 수립하는 후속 조치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경계를 늦추지는 않았다.⁴³⁾ 미군 뼈라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외교평론가 기요사와 키요시는 1945년 3월 11자 일기에서 드디어 정부가 적의 심리전에 대해 신경과민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당국의 반응을 소개했다.⁴⁴⁾ 이 당시 자주 사용되었던 미군 뼈라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선전은 “전쟁은 정신의 문제”로 “적의 심리전에 패하지 말라”였다.⁴⁵⁾ 패전 직전 2, 3개월 동안은 “독일과 이탈리아의 국민이 겪은 모든 곤경은 연합국의 심리전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일본인들이 적의 심리전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경고했다.⁴⁶⁾

미군 심리전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선전 중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유명 인사로 하여금 방송 연설과 신문, 잡지 등에 투고하게 하는 것이었다. 주요 내용은 적국의 심리전에 대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신문사의 독자란에 투고하는 방식도 등장했다. 이 경우 투고자의 주소와 신원은 모두 위장 또는 가짜였다. 또한 정부는

40) 内務省, 『敵ノ文書 図画等ノ届出等ニ関スル件』 『法令全書(昭和20年)』, 마이크로フィルム(YC/2), 国会図書館法令議會資料室所藏.

41) 張會植, 『マッカーサー軍の対日心理作戰と戦後天皇制構想』, 27쪽.

42) 米國戰略爆撃調査団, 『The United States States Strategic Bombing Survey』(太平洋戰爭白書)(第7卷), 134쪽.

43) 佐々木克己, 『空襲ノ与論ニ及ボシタル影響及其ノ対策等』, USSBS Records, Roll 128.

44) 清沢洵, 『暗黒日記Ⅲ』, 評論社, 1976年, 70쪽.

45) 米國戰略爆撃調査団, 『The United States States Strategic Bombing Survey』(太平洋戰爭白書)(第7卷), 134쪽.

46) 위의 책, 같은 쪽.

언론 지도를 통해 미군의 심리전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음의 1945년 6월 13일자 〈마이니치신문〉의 독자투고란 기사를 보면, 일본정부가 미군 뼈라의 파급 효과에 대해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뼈라에 의한 모략전술 이외에 이미 적이 사용하고 있는 수법은 라디오 방송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독이 든 초콜릿, 폭약이 장치된 샤프 연필 등의 살포가 있다. 이것들은 모두 겉으로는 천사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으로는 잔인한 동물적 습성을 가진 적이 마침내 가면을 벗은 잔인한 전범으로 보인다. 특히 독이 든 초콜릿까지 투하하여 우리 일본의 어린 생명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⁴⁷⁾

그러나 이 신문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당국이 실제로 독이 든 초콜릿, 폭약이 장치된 샤프연필이 발견된 흔적은 없었다. 신문기사의 내용은 미국의 잔인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미군이 투하하는 뼈라에 적힌 내용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반감시키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했다.

미국인들의 잔인성을 강조하여 심리전 효과를 반감시키려는 대응선전은 태평양전쟁에서의 미군의 만행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돋보였다. 물론 이 선전은 사실과는 관계없는 꾸며진 이야기였다. 이 수법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당사국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에서 〈적의 만행 이야기〉(atrocities stories)로 불리며 자주 사용되던 것이었다. 적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서 일본 본토에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이미 전선에서는 일본 병사의 시체를 비행기 날개에 달고 와서 우리 진지에 투하하고 돌아가는 잔학무도한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미루어볼 때 본토에 대해서도 어떠한 동물적인 성격의 모략전술을 도모할지 모른다”며 일본군이 태평양전쟁에서 병사가 연합군의 포로가 되지 않고 끝까지 싸우도록 널리 퍼뜨린 방식을 국내 선전에 응용했다.⁴⁸⁾

47) 1945년 6월 13일자 『毎日新聞』.

48) 위의 신문, 같은 날짜.

특히 <적의 만행 이야기>는 미군의 일본 본토 상륙이 예상되던 전쟁말기의 신문과 잡지에 자주 등장했다. 이러한 선전의 의도는 미군이 점령하면 부녀자에 대한 폭행 등 처참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공포심을 자극하여 일본인의 전쟁 의지를 불태우고, 나아가 끝까지 항전하여 ‘신의 나라 일본’(神國日本)을 사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있었다.⁴⁹⁾

<적의 만행 이야기> 이외에도 약전후 때문에 미군 뼈라가 예고한 대로 폭격하지 않은 사실을 이용하여 “‘○일에 대공습을 한다’ 등 뼈라 내용과는 달리 [폭탄이] 전혀 투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문제의 ○일은 무사히 평온하게 지나갔다. 이것이 바로 [적의] 선전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지 않은가?”라며 <공습예고 뼈라>는 믿을 수 없는 적의 선전이라고 주장했다.⁵⁰⁾ 그러나 일본정부의 내부분서에는 <공습예고 뼈라>에 관해 “수개의 도시를 지정하여 폭격을 예고하고 그대로 실시되면 전국적으로 큰 동요가 일어나 ‘악마의 예언’으로 취급되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뼈라가 미칠 영향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다.⁵¹⁾

하지만 일본정부는 전쟁 막바지까지 대체로 내무성령의 규정에 따른 뼈라 회수 등 소극적인 대책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것은 칙명에 의해 1945년 6월 7일부터 11일에 걸쳐 행정 사찰을 하고 그 결과를 스즈키 간타로 총리에게 보고한 <행정사찰보고서>에 나타나 있었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의 심리전에 대해 “적의 비행기가 살포하는 뼈라에 대해서 단순히 회수하는 데 머무르는 점은 심히 유감이다. 뭔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미군 뼈라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진언하고 있다.⁵²⁾

49) Hoi Sik Jang, *Japanese Imperial Ideology, Shifting War Aims and Domestic Propaganda during the Pacific War of 1941-45*(Ph.D. Thesis: University of New York at Binghamton, 2007), pp.207~8.

50) 1945년 6월 3일자 『毎日新聞』.

51) 佐々木克己, 「空襲ノ与論ニ及ボシタル影響及其ノ対策等」, *USSBS Records*, Roll 128.

52) 世界經濟調査会, 「行政査察報告書」, 1945年 7月 23日, *USSBS Records*, Roll 142.

행정사찰단이 조사한 6월은 일본정부가 본토결전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던 때였고 또한 설상가상으로 미군의 공습이 극심했던 시기였던 만큼 당국으로서는 미국의 심리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만한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거의 없었다. 결국 항복한 달인 8월에 들어가면서 “빠라의 정체는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포장하는 것으로서 이런 이유로 [전황에 관한] 일부의 진실을 덧붙이는 것이 심리전의 요체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군 뼈라에 쓰여 있는 전선에서의 실제 전황을 일부나마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⁵³⁾

그럼 미군 뼈라에 대한 일본인의 반응은 어땠을까? 먼저, 미국의 뼈라에 대해 당시 일본의 헌법상 선전포고권자이자 전쟁종결권자였던 히로히토 일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일왕의 반응은 일본의 항복을 요구한 연합국의 〈포츠담선언〉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1945년 7월 26일 미·영·중 등 연합국 정상들은 독일 베를린 외곽의 소도시인 포츠담에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포츠담선언〉을 발표하고 일본정부에게 이 선언을 수락하도록 촉구했다. 연합국의 요구에 대해 일본 측은 1945년 8월 9일부터 10일에 걸쳐 일왕이 주재하는 어전회의를 개최하고 일왕제 유지를 조건으로 동 선언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답신을 연합국 측에 보냈다. 그러나 연합국을 대표하여 일본정부가 일본 측에 보낸 문서인 소위 〈번즈회답〉에는 일왕제 유지 문제에 대해 어떠한 긍정적인 메시지도 들어 있지 않았다. 〈번즈회답〉에는 “항복 시부터 일왕 및 일본정부의 국가통치의 권한은 항복조항의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연합국최고사령관의 제한 아래에 둔다”며 전후 일왕제의 존속여부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⁵⁴⁾ 그 결과 일본 지도층 내부에서는 미국 측 회답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가 며칠 동안 계속되고 있었다.

이처럼 일본 지도층 내부에서 항복과 철저 항전 여부를 놓고 치열한

53) 1945년 8월 4일자 『朝日新聞』.

54) 張會植, 『マッカーサー軍の対日心理作戰と戦後天皇制構想』, 35쪽.

대립이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은 ‘진실’을 전달하는 심리전 전략에 따라 8월 13일 오후부터 14일 오전에 걸쳐 “귀국 정부가 요구한 항복조건을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을 대표하여 일본정부에 보낸 회답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이 뼈라를 투하합니다”라는 내용의 뼈라가 도쿄 등지에 살포했다. 당시 미국의 전시정보국 요원으로 근무한 존 킹 페어뱅크에 의하면, 이 뼈라는 전시정보국이 제작한 것으로 사이판 주둔의 제 20공군 소속 B-29에 의해 투하된 것이었다.⁵⁵⁾ 일왕의 정치고문격인 내대신으로서 최측근으로 불리던 기도 고이치는 궁궐 안에서 주운 뼈라를 직접 일왕에게 보여주면서 만약 이 뼈라가 군인들과 국민들 손에 들어가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진언했다.⁵⁶⁾ 히로히토는 전후 일본의 전쟁범죄자들을 재판한 극동국제군사재판(일명 ‘도쿄재판’)의 대책을 논의하던 당시 이 뼈라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의견이 분열되어 있는 사이에 미군은 비행기에서 선전 뼈라를 뿌리기 시작했다. 일본이 〈포츠담선언〉 수락에 대해 회답했다는 사실을 일본 국민에게 알리는 뼈라였다. 이 뼈라가 군부의 손에 들어가면 쿠데타가 일어난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조야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심하고 14일 오전 8시 반경 스키 총리를 불러 조속히 회의를 개최하도록 명했다.⁵⁷⁾

이 회의에서 히로히토는 항복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히로히토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본 지도부 내에서 미국정부가 보내 온 〈번즈회담〉으로는 일왕제 유지가 불확실하다며 논란이 일고 있는 사이에 미군이 투하한 뼈라가 일왕으로 하여금 항복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한 사실이다. 내대신 기도의 기록에도, 히로히토의 항복 결심 배경에는 뒤에서

55) John King Fairbank, *Chinabound: A Fifty-Year Memoir*(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82), p.296.

56) Bonner Fellers, “Peace from the Palace”, *Fellers Papers*, p.10.

57) 寺崎 英成, マリコ・テラサキ ミラー, 『昭和天皇独白録・寺崎英成御用掛日記』, 133쪽.

종전을 위한 공작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군부 강경파에게 알려질 경우 정국이 큰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고 적혀 있어 일왕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⁵⁸⁾

히로히토와 기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미국의 심리전담당 고위 장교가 남긴 편지에서도 확인되었다. 전시기 맥아더 휘하의 심리전부 부장으로 그리고 일본의 패전 후에는 점령군으로 도쿄의 맥아더 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있던 펠러스 준장은 1946년 3월 10일, 본국에 있는 아내 도로시 펠러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일왕이 하루 전(3월 9일) 측근인 데라사키 히데나리를 통해 자신에게 “빠라를 본 군인들이 쿠데타와 같은 과격한 행동을 할 우려가 있어 항복의 결단을 내렸다”는 말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⁵⁹⁾ 전시기 맥아더군 내의 대표적 ‘지일파’로서 맥아더에게 일본의 일왕제 등에 관해 조언한 펠러스는 미국의 빠라가 일왕의 항복 결정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실을 본국의 아내에게 털어놓은 것이다.

다음은 일반 국민의 빠라에 대한 반응을 살펴본다. 당시 빠라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조사한 내무성 자료를 보면, 일반적으로 빠라가 투하된 초기에 “일부 국민들이 호기심을 가질 정도로 대체로 적도 드디어 [일본을 향한] 선전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또는 유치한 선전 빠라라며 웃어넘기는 것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문제시되는 반응”은 없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의 빠라 제작 기술과 내용이 점차 향상되었고, 일본의 전황 악화, 식량 부족, 미군의 공습 등과 맞물려 국민들 사이에서 전쟁의 향배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미군 빠라가 “전황에 대한 진상과 원인 등을 알려 국민의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결과 [빠라의 내용을] 믿는 사람들이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즉, 빠라가 투하된 초기에는 거의 효과가 없었으나 전쟁말기부터는 영향을 받았다.⁶⁰⁾ 도쿄지방경찰청(경시청) 자료에는, 도쿄 도민이 “빠라의

58) 木戸幸一, 『木戸幸一日記(下)』, 東京大学出版会, 1966年, 1227쪽.

59) Bonner Fellers, “Letter to Dorothy”, 10 Mar. 1946, *Fellers Papers*.

진실성을 인정하고 일본의 필승에 의문”을 품었으며, 특히 1945년 “7월 경부터 드디어 동요하는 조짐”이 보였다고 적혀 있다.⁶¹⁾

빠라는 일본 사회의 치안 붕괴의 한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내무성은 전쟁말기 치안이 붕괴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공습의 격화, 식량 부족, 인플레이션의 악화, 반군·반관 사상의 심화, 본토결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활발한 미국 심리전을 들었다. 또한 내무성은 미군의 심리전에 대해 전황의 악화와 더불어 미군 빠라의 살포 빈도가 증가하고 내용도 다양화 되면서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했다.⁶²⁾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 빠라는 유언비어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 동부현병대는 비관적인 전황을 틈타 미군 심리전의 내용을 둘러싸고 유언비어가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⁶³⁾

실제 전황에 대해 목말라 있던 일본인들 사이에서 많이 읽혀진 빠라는 <낙하산뉴스>와 <마리아나시보>였다. <낙하산뉴스>는 맥아더 휘하의 심리전부가 마닐라에서, <마리아나시보>는 태평양상의 섬인 마리아나에 있던 전시정보국 파견 요원들이 만들어 일본 본토에 살포한 빠라였다. 이들 빠라가 널리 읽히게 된 이유는,大本영 보도부와는 달리 미군이 만든 <낙하산뉴스>와 <마리아나시보>는 전선에서의 실제 전황을 자세히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⁶⁴⁾ 미군의 ‘진실’을 전달하는 심리전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간 것이었다.

<10엔 지폐 빠라>는 이것을 고안한 미국 심리전 요원들의 당초 의도대로 일본 금융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내무성 자료를 보면 “10엔 지폐의 앞면은 극도의 위조기술로 교묘하게 인쇄되어 있고...(중략)...특히 크기가 작아서 주운 사람들 중에는 [당국에]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

60) 内務省, 「極東防空軍司令部フィシャア大尉会見資料」, *USSBS Records*, Roll 128.

61) 警視庁, 「米國戰略爆撃調査ニ關する件」, *USSBS Records*, Roll 130.

62) 栗屋憲太郎·中園裕編集·解説, 『敗戦前後の社会情勢第1巻 戦争末期の民心動向』, 現代資料出版, 1998年, 435~36쪽.

63) 南博·佐藤健二編, 『近代庶民生活誌 第4巻 流言』, 三一書房, 1985年, 308~9쪽.

64) 張會植, 「マッカーサー軍の対日心理作戰と戦後天皇制構想」, 44쪽.

많으며...(중략)... 한편으로는 조만간 반드시 양면 모두 위조된 일본지폐가 살포될 것이라며 금융계에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적혀 있다.⁶⁵⁾

특히 〈공습예고 뼈라〉는 미군이 만든 뼈라 중에서 일본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⁶⁶⁾ 예를 들면, 일본 동북지역의 아오모리현 아오모리시의 경우, 1945년 7월 27일 뼈라가 투하된 후 수많은 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떠났다. 그러나 아오모리현 지사인 가나이 모토히코는 〈방공법〉 제8조의 3에 의거해 명령을 내려 시민들을 소재지로부터 돌아오게 했는데, 미군이 예고한대로 7월 28일 공습을 실시하여 731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⁶⁷⁾ 또한 〈공습예고 뼈라〉는 국민들이 대본영의 전황 발표에 의문을 품게 하는 역할을 했다.⁶⁸⁾ 그 결과 일본정부로 하여금 조금씩이나마 실제 전황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⁶⁹⁾

1946년 작성된 미국전략폭격조사단 보고서에는 뼈라가 일본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되어 있다. 미국 조사단의 보고서에 나타난 일본인의 반응을 보면, 〈뼈라 내용을 완전히 믿었던 사람〉 32%, 〈조건부로 믿었던 사람(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의견을 바꾼 사람 포함)〉 24%, 〈믿지 않았던 사람〉 33%, 〈무응답〉 11%로 각각 나타났다. 계층별·지역별 반응을 보면, 농촌지역의 젊은 부인과 도시지역의 젊은층이 뼈라의 내용을 가장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쟁 의지가 가장 높았던 층은 주로 젊은층으로 나타났다. 도시와 농촌에 공통되는 현상은 교육정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뼈라를 신뢰하지 않았다. 다만, 〈공습예고 뼈라〉에 관해서는 교육정도와 거의 관계없이 믿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공습을 받은 도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뼈라의

65) 内務省, 「極東防空軍司令部フィシャア大尉会見資料」, *USSBS Records*, Roll 128.

66) 南博·佐藤健二編, 『近代庶民生活誌 第4巻 流言』, 196쪽.

67) 日本の空襲編集委員会編, 『日本の空襲—北海道·東北』, 三省堂, 1980年, 107쪽.

68) 内務省, 「極東防空軍司令部フィシャア大尉会見資料」, *USSBS Records*, Roll 128.

69) USSBS, “Interview with Isamu Iuoue”, 5 Dec. 1945, *USSBS Records*, Roll 129.

내용을 신뢰했다. 결론적으로 미국 조사단은 미군의 심리전은 전황의 악화, 공습의 격화, 생필품의 부족 등과 연동하여 국민에 대한 심리적 효과를 발휘하였고, 방송에 의한 심리전은 실패한 반면, 뼈라는 일부 국민들을 지도자로부터 이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했다.⁷⁰⁾ 뼈라 제작자들의 당초 의도대로 '이간책'이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한 것이다.

5. 결 론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태평양전쟁기 미국이 일본을 향해 실시한 심리전의 2대 전략은 일본인들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것과 전쟁을 일으키고 실제 전황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군부 또는 각료를 비판한 반면에, 일왕과 일반 국민은 '희생자' 또는 '평화주의자'로 묘사하는 '이간책'이 돋보였다. 따라서 미군 뼈라 속에 나타난 메시지는 미국의 적은 군부와 각료이지 신성한 일왕과 일반 국민은 아니라고 하는 <일왕·국민 = 선·평화·피해자 對 군부·각료 = 악·전쟁·가해자>라는 대립 구도의 이미지로 고착화되었다.

미군 심리전에 대한 보통 일본인의 반응을 보면, 전쟁 초기단계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었으나, 전쟁 말기부터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미군의 심리전은 일본 국내의 치안 붕괴에 원인을 제공했다. 일본 측의 미군 뼈라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은 1945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 전황의 악화, 공습, 식량 부족 등에 의해 국민의 전쟁 의지가 저하되었기 때문에 당국은 뼈라가 국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웠으며 경찰과 헌병에 의한 감시를 강화하였으나 뼈라 회수 이외의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파 방해 시스템을 가동하여 사전에

70) 米國戰略爆撃調査団, 『The United States Strategic Bombing Survey』(太平洋戦争白書)(第7巻), 129쪽, 130~134쪽.

차단할 수 있는 미국의 방송과는 달리 하늘에서 떨어지는 ‘중이폭탄’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미군 뼈라가 히로히토 일왕의 종전 결정에 일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태평양전선에서 일본군의 전세가 이미 기울어져 있었고, 본토에는 연일 계속되는 미군의 공습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살상되고 있는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항복 결정을 머뭇거리고 있던 일왕으로 하여금 1945년 8월 14일 종전을 최종적으로 결심하게 만든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미군기에서 투하된 실제폭탄이 아닌 ‘중이폭탄’이었던 것이다. 일왕의 항복 결심에 영향을 준 ‘중이폭탄’은 ‘진실’을 전달하는 심리전 전략에 따라 제작, 투하된 것이었다. 국민들에게 철저 항전을 독려하면서도 뒤에서는 종전을 위한 공작을 하고 있었다는 ‘진실’을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조기에 항복을 유도한다는 전략이 효력을 발휘한 것이었다.

태평양전쟁기 일본을 대상으로 실시된 미국의 심리전에서는 장래에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맥아더의 부하였던 데이비드 바로즈 소장은 종전 직후 “전시기 맥아더군이 뼈라에서 일본인에게 약속한 장기적 정책은 전후 그가 일본 점령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후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었다”고 주장했다.⁷¹⁾ 전시기 미군이 뼈라를 통해 일본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전후 맥아더의 정책으로서 실행되었다는 의미이다.

일본의 전쟁 책임에 관하여 전쟁 말기 본토에 뿌려진 뼈라 중에는 “일본 군부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전쟁 중 이미 심리전 뼈라의 내용에 ‘지도자 책임론’이 부상한 것이다. 바로즈 장군의 주장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전후 점령군 사령관으로서 일본에 부임한 맥아더가 일왕의 전쟁 책임에 대해 특별히 조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전시 심리전에서 고착화된 ‘지도자 책임론’은 점령 정책으로서

71) Nat Schmulowitz and Lloyd D. Luckmann, “Foreign Policy by Propaganda Leaflets”, *Public Opinion Quarterly*, Vol.9, No.4, Winter 1945~46, p.492.

그대로 전환되었다. ‘지도자 책임론’은 맥아더 주도로 일본의 전범을 재판하기 위해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도 실현되었다. 동 재판에서 일왕과 일반 국민은 전쟁 책임을 면하고, 반면에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고위 장교와 관료 등 일부만 전범으로서 유죄를 언도받았다. 결국 전시기 미국의 심리전에서 ‘이간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일왕·국민 = 선·평화·피해자 對 군부·각료 = 악·전쟁·가해자>로 고착화된 이미지가 전후 점령정책에 계승됨으로써 일본인의 전쟁 책임 의식을 희석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3.3.15, 심사수정일 : 2013.5.14, 게재확정일 : 2013.5.22)

주제어 : 태평양전쟁, 심리전, 일본 본토, 뼈라, 이간책, 일왕, 항복

<ABSTRACT>

U.S.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the Japanese Homeland and Their Reactions during the Pacific War of 1941-45

Jang, Hoi-si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urther our understanding the conduct of American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the Japanese homeland and their reactions during the Pacific War in order to induce demoralization among Japanese people and thus hasten Japan's defeat. Two policies, as a 'divide and rule' tactic, were central to American psywar operations: to tell the truth and to refrain from criticizing Japanese emperor Hirohito and ordinary Japanese.

The strategy of telling the truth was designed primarily to establish and maintain the credibility of information disseminated by Americans. It enabled propagandists to establish trust between themselves and the Japanese people they hoped to influence. It dictated that psywarriors induce despair within the enemy's ranks by distributing accurate information. The decision not to criticize the Japanese emperor was astute. Rather than blaming the emperor for the devastating results of the war, which would have alienated the target audience, American propaganda portrayed Hirohito and ordinary Japanese as an unwitting victim of the militarists who controlled Japan and were always criticized by American psywarriors. Japanese authorities made a considerable effort to prevent the effectiveness of American psychological warfare.

The Japanese reactions to American propaganda were that the early leaflet efforts were unsuccessful, partly because they were poorly adapted to the target. As the war situation worsened and quality of leaflets improved, however, they met acceptance, especially from the early summer 1945 on. What has to be noted is that the leaflet disseminated on the

homeland saying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accepted the Potsdam Declaration for surrender, influenced Hirohito's decision to issue an Imperial Rescript ending the war.

Key Words : Pacific War, psychological warfare, Japanese homeland, leaflet, divide and rule, emperor, surrender